사무직 여성 90년 여름 통권 1호(창간호)

<이 사람>

여행원 아픔과 기쁨 함께 한 15년
- 국민은행 노동조합부위원장 이선자 씨를 찾아 -

국민은행 최초로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노조집행부. 계간 「사무직여성」 창간호에서는 노조부위원장 이선자 씨(36)를 만나보았다. 이 씨는 여행원 생활 15년 동안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 독한 여자 ’ ‘ 질긴 여자 ’ 라는 내돌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다. 호칭과 차별임금 개선, 모성보호를 주장하며 묵묵히 실천해 온 그의 직장생활 15년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눠본다.

1. 선망하던 은행 들어온 기쁨도 잠시

경찰공무원인 아버지와 평범한 시골 아낙의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이선자 씨가 은행에 입사한 것은 지난 74년. 당시만 해도 은행은 많은 여성들이 동경하던 최고의 직장이었다.

“ 공부는 서울서 해야 한다 ” 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사 온 것은 이 씨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자라면서 교사가 꿈이었지만 “ 세상에 제일 좋은 직장이 은행이니 여상에 가라 ” 시던 아버지의 바람대로 고교졸업과 동시에 국민은행에 취직하였다. 청량리지점에 첫출근 하던 날 어머니는 너무 기뻐 동네잔치를 벌였다. 그 역시 “ 내 밥벌이는 내가 할 수 있게 되었구나 ” 하는 뿌듯함과 함께 적금도 들고 동생들 용돈 주는 잔재미에 빠져 은행일이 신나기만 했다. 일요일에도 은행일이 궁금해 빨리 월요일이 되어 출근하고 싶을 정도였다. 수기 처리하던 바쁜 은행일, 매월 결산 때마다 돌아오는 2~3일씩의 밤샘일도 힘든 줄 모르고 해냈다.

그때는 창구에서 현금 사고가 나면 동료들이 서로 책임을 나누어지던 터라 그야말로 몸 아끼지 않고 꼼꼼하게 일하며 신참 시절을 보냈다.

적은 월급이지만 그래도 월급날은 기쁘고 설레어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봉투를 열어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입행 초기에는 야간대학에 갈 요량으로 퇴근 후 학원에 다니기도 했으나 곧 단념하고 그 후로 수년간은 휴일이면 등산에, 여행에 전국을 돌며 동료들과 어울렸다. 그야말로 별 불만 없이 행복했던(?) 20대 중반의 여행원 시절이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남자 입행동기들보다 월급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 똑같은 상고 출신인데…… ” 하는 막연한 서운함과 의문을 떨칠 수 없었고, 지금까지 이 씨가 누려왔던 행복감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다.

2. 여행원 문제 확실히 알게 해 준 전직고시 불합격

은행계 내부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78년 여행원의 전직고시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듬해인 79년 응시 자격을 얻은 그는 입행 남자동기에 비해 받았던 그간의 남녀차별에 섭섭했던 만큼 전직고시에 매달렸다. 그러나 합격자는 100명 중 4명뿐. 그는 떨어졌다.

“ 이 시험은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한 것 ” 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 앞에서 그녀는 시험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82년 전직고시에서는 무려 30명이 합격했다. 그녀는 재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영어. 영어책을 본지 10년이 넘은 그녀는 곧바로 새벽 영어학원에 등록하고 ABC부터 다시 시작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나마도 시험은 실시 8년 만인 84년에 아예 폐지되고 말았

다.

그는 ‘여행원들에게 아무런 애정도 갖고 있지 않은 은행’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함께 참담함을 느꼈다. 시험제도 설치나 시험과목에 대한 사전 조사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가 TO제로 묶어 여직원끼리의 경쟁을 시켜놓고 어느 순간 중지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벌써 입사동기 남행원은 대리가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여행원 이선자’였다.

10년 근무에 여행원 딱지도 못 벗어났는데, 남자일 다 할 수 있어도 일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노조는 도대체 수천 명의 여행원들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직원 교육은 고작 교양강좌로 그치고 노보는 여행원 문제에 관한 기사를 싣는 데 자린고비처럼 인색하기만 했다. 더욱이 88년 임투 시에는 노조방침을 열심히 따랐는데도 ‘5급17호 행원에게 직급수당 2만원 지급’이란 혜택에서도 여행원을 제외, 만년 천덕꾸러기였다.

“우리가 들러리입니까?”

“딴 사람들은 아무 말 없는데 왜 이선자 씨만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그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다져먹었다. 그는 몇몇 여행원과 함께 여직원의 전결권에 대해 보상해 줄 거소가 책임자고시 합격 시 전호봉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명지를 전 지점에 돌리기 시작했다.

3. 10년 근무에도, 결혼 후에도 ‘양’으로 불리는 여행원

아무리 두드려도 차별의 문은 완강하기만 했다. ‘별난 여자’ ‘말 많은 여자’로 불리는 그녀는 88년 새 지점으로 발령과 동시에 은행의 한직인 국고업무에 배치되어 통상 3개월 근무의 관례를 깨고 6개월이나 근무했다. 부가가치세 마감 날에는 새벽 2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한 덕에 허리가 안 펴져 며칠 동안 ‘곱사등이 걸음’으로 다니기도 했다.

“‘내 일은 막노동과 다를 게 없으니 나는 노동자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사실 노동강도도 엄청나게 세서 점심 먹을 시간은 물론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도 손님들 줄세워 놓고 화장실 갈 시간 내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유산하는 여직원, 체력이 달려 퇴직하는 여직원도 빈번히 생겼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그래도 여자 직장으로는 은행이 괜찮은 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일단 여직원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하는 한편 작게는 호칭 문제부터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까지 여행원은 나이와 결혼에 관계없이 ‘양’으로 남자행원은 모두 ‘주임님’으로 불러야 했다. 어느 동료는 10년 아래 남행원이 계속 ‘ㅇㅇ양’으로 불러대는 통에 심한 두통으로 몸져누운 적도 있었다. 그는 ‘양’으로 부르는 남자들을 모두 ‘군’으로 부르고 난 뒤 1주 만에 자기 이름 석 자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건 그에게만 해당되었다. 그는 호칭 문제를 다시 신문에 투고했다. 이어 본점에서의 잇따른 회의와 파장 끝에 국민은행 여직원들은 ‘양’에서 드디어 ‘씨’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4. ‘여자와 걸레는 친해야 한다’는 지점장 밑에서

몇 년 전 어느 지점에 근무할 때였다.

보통 은행에서는 청소부를 두는 것이 관례인데, 그 지점장은 “여자와 걸레는 친해야 한다”며 여직원에게 직접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과중한 업무에다가 청소는 정말 힘겨운 부담이었다. 게다가 이미 청소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터라 그녀는 직접 나서 청소부를 구해 지점장에게 알렸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여직원들은 모두가 청소거부 운동을 벌였다. 쓰레기가 쌓이고 먼지가 곳곳에 쌓였으나 모른 체하였다. 남직원들이 지점장 눈치 보다가 직접 비를 들고 청소를 하면서 그를 제외한 다른 여직원만 들들 볶아댔다. 그는 이런 작은 일들은 결국 여행원들이 받는 낮은 대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버텼다.

이런 몇몇 사건으로 인해 그는 ‘독한 여자’로 통하게 되었다. 사실 그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나 상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나가면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짓는 정 많고 여리디 여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건만.

아무튼 그녀는 조금씩 변해갔던 것이다.

5. “아줌마인가요?” “노처녀입니다.”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경력과 신뢰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은행에서 여직원이 장기 근속하는 것은 때때로 미안함과 눈치를 동반하기 십상이다. 30세를 훌쩍 넘긴 몇 년 전 새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 지점장에게 인사차 들렀다.

“아줌마인가요?”

“아뇨, 노처녀입니다.”

“여직원도 한솥밥 먹는 직원입니다. 그런 표현은 많은 여직원들을 마음 고생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보는 듯한 상사의 어투에 화가 나 이렇게 응수했다.

국민은행은 서민은행이라 업무가 어느 은행보다 바쁘고 잔일이 많아 숙련된 여직원의 역할이 큰데 이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내돌림 당하는 듯 했다. 그는 그같이 수시로 겪는 은근한 퇴직 압력의 눈총에 수모와 분노마저 느끼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든든한 ‘빽’이 생긴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고, 업무전산화로 남녀의 일도 동일해졌건만 우리 여행원이 받는 차별임금의 폭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넓기만 하였다.

6. 전문가의 해결에 걸어본 기대도 깨어지고

여직원들의 들끓는 여론과 요구에 맞춰보겠다는 의지로 노조는 전문가에게 새로운 보수체계연구를 의뢰하였다.

남자는 직책에 관계없이 9등급, 여자는 3등급.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그는 연구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교수님은 시대를 거꾸로 사십니까? 이것이 차별개선 신보수체계란 말입니까?”

—“여자는 팔자로 생각해야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린 팔자 타령할 만큼 여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의 사활은 창구 여직원에게 달려있다는 요지의 89년 은행장의 신년사를 보고 결국 사활을 걸머진 5천여 여직원에 대한 대우가 고작 이 정도인가? 우리는 누굴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와 냉소가 엇갈렸다. 그러나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은행장님의 신년사에 냉소를 씹는다’란 글을 노보에 실었다. 노보를 본 각 지점의 많은 여행원들이 “공감한다”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며 전화나 편지로 응답을 보내왔다. 그 무수한 메아리에 그는 스스로 놀랐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 이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다시 마음을 다잡아먹고 89년 임금교섭 때는 여직원들의 의사표시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남녀평등’이라고 적은 리본 5천 개, 차별임금과 모성보호의 실태를 낱낱이 밝힌 유인물을 경인지역 전체 지점에 돌렸다. 동시에 각 지점에 전화해 여직원대표를 한 명씩 뽑아달라고 한 후 한자리에 모였다. 그랬더니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모이게 된 경위서를 작성하라. 왜 선동하고 다니느냐.”

“헌법에도 있는 ‘남녀평등’을 리본에 써서 달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지방발령을 내겠다.”

“좋습니다. 단 남자직원과 마찬가지로 합숙소를 내 주시든지 여자에게도 임차제도를 개선해 셋방이라도 얻어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은행간부와 목소리를 높여 담판을 짓고 나왔지만 ‘혼자 소리로만은 할 수 없는’ 높기만

현실의 장벽을 절감해야 했다.

7. 마침내 여직원모임 여정회를 결성하다

예정된 지점여직원 대표자 모임을 갖고 89년 위원장 선거에 여직원 문제에 편견 없는 위원장을 선출하자고 결의한 뒤 이에 동의하는 12명(기혼 6명)으로 여직원정상화추진위원회(여정회)를 결성하였다.

아등바등 혼자 소리치던 메아리 없는 독창이 이젠 합창곡으로 크게 울려 퍼질 것 같았다. 기뻤고 절로 힘이 솟았다.

“무조건 순종하며 상사나 남직원에게 예쁨 받는 여직원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여직원을 우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정회 사무실은 항상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행원들에게 여정회를 이렇게 알렸다. 여정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여정회를 지지하는 많은 여행원의 후원회비 덕분에 89년 7월 마포에 사무실을 열었다.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집행부를 뽑는 데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1만 8백 조합원의 43%를 차지하는 여직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여정회가 되기를 바라며 홍보작업을 시작했다. <노조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남녀고용평등법 해설> 등 여러 가지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해 나갔다. 여정회는 그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노조 새 집행부가 선출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여자 대의원 수도 전체의 12~13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는 이것이 바로 소외된 사람들의 힘임을 절감했다.

입행 후 우직하게 소처럼 일만 하던 평범한 여행원 이선자 씨는 이제 노조집행부의 일원으로, 여행원들의 큰언니로 그간의 난제를 풀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8. 인내와 헌신의 자세 지닌 노동운동가가 소망

“조합원의 입장에서 여행원 문제를 볼 때보다 노조에 들어와 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녀 단결해 우리 몫을 더 확보하면서 차별의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남녀 경쟁적 사고는 금물입니다. 물론 조급해서는 안 되지요.”

이제야 ‘국책은행 노조간부’의 어려움이 실감난다는 그는 임기 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남직원들의 여행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는 어느 남직원이 ‘우리 은행 여행원 급료는 외부에 알리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조차 하였다.

지금까지 꿈쩍도 않던 편견과 차별의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의 정직함을 그는 지금 피부로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15년간 냉가슴을 앓아왔던 이선자 부위원장은 여직원과 남직원, 여직원과 노조집행부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을지로 1번지 그의 일터를 향해 당당하고 힘찬 걸음을 옮긴다.